

## 종단 최초 역사·윤리교과서 만든다

## 1년 동안 통합종단 출범이후 과거사 1994년 멀빈자 문제 '해결방안 마련'

“초중고교 불교내용 축소원인은 시대 부합 교육학적 해석 소홀”

佛社研, 불교참고 자료도 제작  
현 윤리교과서 오류도 대폭 수정

불교 관련 오류를 바로잡고 올바른 불교 이해를 돕기 위해 종단차원에서 역사와 윤리교과서 제작에 나선다. 또 교과서 집필자들이 불교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알기 쉽게 서술할 수 있도록 2015년 교육과정에 맞춰 역사와 윤리, 사회과목에 대한 집필자용 참고자료도 편찬한다.

불교사회연구소 초중고 개편교과서 연구위원회(위원장 법안스님)는 지난 4일 이같은 교과서 편찬 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교과서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현대교육과정에 맞춘 제대로 된 불교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우리사회 교육문제에 대해 불

교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답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위는 먼저 2018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고교 도덕과 진로선택 과목인 <고전과 윤리> 교과서를 편찬할 계획이다. <고전과 윤리>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교육부의 신설과목으로, 불교경전인 <금강경> <수심경>과 함께 <논어>, <공리주의> 등 총 14권의 동서양 고전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는 과목이다. 연구위는 20여 명의 연구위원 및 전문위원과 함께 2년에 걸쳐 250~300페이지 분량의 교과서를 만들어 종립학교를 비롯해 일선 교육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일반 출판사에서 교육과정 집필기준에 맞춰 교과서를 출판하는 것처럼, 연구위에서도 이 시스템에 따라 책을 만들 방침이다. 연구위는 “가톨릭에서는 철학교과서를 20여 년 전부터 제작해 200여개 종립학교에서 교육하고 있다”며 “가톨릭의 철학교과서가 지금은 보편적인 교과서로 쓰이는 것처럼, 불교적 시각에서 동·서양의 고전윤리과목을 편찬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위는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청소년을 위한 불교사’(가칭) 편찬 계획도 밝혔다. 앞서 연구위는 2013년 불교사회연구소와 불광연구원 ‘초중고 역사교과서의 불교 서술체제와 내용’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정리해, 7월 22일 국사편찬위원회에 청원서를 전달하고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사 교과서 편찬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묶은 텍스트를 만들자는 의견이 모아져 제작에 나서게 됐다. 연구위는 “3년 여에 걸친 교과서 관련 활동을 정리하며, 현행 교과서에 불교내용이 왜곡되거나 축소된 가장 큰 원인은 그간 불교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교육학적 해석에 소홀했기 때문임을 알게 됐다”며 “이런 과정 속에서 불교계가 미래세대를 위해 제도권 교육현장에서 올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 교과서를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구위는 이날 고교 윤리교과서에 나타난 잘못된 불교 내용 가운데 교육부 청원을 통해 70% 이상 바로잡은 사실도 발표했다. 연구위에 따르면 30개 수정요청한 가운데 22개항이 반영됐다. 위원장 법안스님은 “교계 언론의 심층보도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 연구위 위상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불광연구원장 지흥스님은 “양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성과들이 가지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교과서 관련 활동이 제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총무원장 지흥스님과 군종교구장 정우스님, 총무원 사회부장 정문스님은 지난 3일 육군 12사단 최전방 GOP소초를 방문해 '사랑의 독서카페'를 기증하는 현판식을 가졌다. 현판식에는 나상용 3군단장, 조중설 12사단장과 GOP 소대원들이 참석했다.

## “군복무 중 독서카페서 심신수양하길”

아름다운동행·군종교구  
12사단 GOP소초 5곳에  
문화공간 독서카페 기증

조계종(총무원장 지흥스님)이 자비나눔사업의 일환으로 병영 내 독서문화 확산과 장병들의 인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전방 GOP 소초 5곳에 독서카페를 지원했다. 총무원장 지흥스님은 지난 3일 육군 12사단 최전방 GOP소초를 방문하고 이곳에서 '사랑의 독서카페' 기증식을 가졌다. 기증식에는 군종교구장 정우스님, 총무원 사회부장 정문스님과 나상용 3군단장, 조중

설 12사단장과 GOP 소대원들이 참석했다.

독서카페는 컨테이너박스를 활용한 문화공간이다. 27㎡ 넓이의 독서카페에는 1000여 권의 책을 꽂을 수 있는 5단 책꽂이와 냉난방 시설과 테이블, 조명은 물론 음악도 들을 수 있는 CD플레이어까지 갖춰져 있으며, 14명의 장병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종단은 12사단을 포함해 제1야전군사령부 예하 5개의 전방 GOP 소초에 독서카페를 지원했다.

나상용 3군단장은 “독서카페 설치 후 쾌적한 환경에서 전우들과의 휴식과 및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사고 예방은 물론 전투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독서카페를 지원한 총무원장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군복무 중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독서카페에 들러 몸과 마음을 수양하고 교양을 넓혀서 더 큰 사회의 일원으로 나가길 바란다”며 “건강한 모습으로 복무를 다하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건강하게 돌아가는 것이 의무임을 잊지 말고 무탈하게 복무를 마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독서카페 기증식을 마친 총무원장 지흥스님을 비롯한 종단 관계자들은 을지전광대를 돌아본데 이어 12사단 호국향로암(주지 이종민 법사)을 방문하고, 금일봉을 전달했다.

인제=어현경 기자 eonald@bulgyo.com



성전스님의  
행복해지고 싶을 때

### 치자꽃 향기

“새벽길 그냥 지나치는데 치자꽃 향기 뒤에 다가와 나를 잡았다. 돌아보니 잎 속에 하얗게 꽃이 피어 있었다. 나를 지나쳐 간 그대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비정하게 지나쳐 가는 바위 같은 그대의 등을 보며 나는 그대를 원망했었다. 오늘 새벽길 치자꽃 향기를 돌아보며 진정한 원망해야 할 것은 그대가 아니라 향기 없는 나의 삶이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향기를 찾아 이 새벽 치자꽃 위에 내리는 별빛을 보라. 그리고 치자꽃 향기가 그러가는 저 별빛의 눈동자를 보라.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향기라는 사실을 나는 깨닫는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보다는 타인을 원망하는데 익숙합니다. 성찰보다는 비난에 익숙하고

책임지기 보다는 책임을 전가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아름답지 못한 삶의 태도입니다. 적어도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서부터 사유를 시작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문제의 해결 역시 자신 안에서 발견합니다. 자신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을 비난하거나 힐난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비로 모든 사람을 대할 뿐입니다.

산에 산다는 것은 자신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자신을 만나며 자신의 못나 모습들을 하나씩 지워가는 것이 산에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산에 자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조화롭게 자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낮이면 해 뜨고 밤이면 달빛이 쏟아지는 자리에서 욕심과 주장은 흥물스럼기만 합니다. 나무도 숲도 청산도 강아지도 중도 모두 안으로 자신을 비추며 소박한 삶의 조화 속에 자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삶은 비난이 아니라 안으로 자신을 반성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산 중에서는 깨닫게 됩니다.

산에 들어 원망과 비난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해와 용서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밖을 향해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허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내 곁을 스치고 지나가다 치자꽃 향기를 맡은 자비의 향기를 맡았다고 내게 말을 전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남해 엄불암

### 辭 書

命 박인탁 취재1부장  
命 하정은 취재2부장

■ 경력기자 합격자 발표  
박봉영

2015년 9월 4일

국가 귀속됐던 유물 '사찰소유' 결정, 부처님 품으로...

7면

☺ 조계종 신도의 기본, **발심품계(신도증)**로 시작합니다

• 신도품계 두 번째 단계

## 신도님 기본교육 받으셨나요?



올바른 불교 신행,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교육 이수하시고, 향도품계 받으세요.

• 신도 기본교육기관에는

본종 산하 사찰, 전문교육기관, 본종 산하 사찰의 연합교육 기관, 대한불교조계종 디지털대학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문의 : 02.2011-1996, 1904

<신도교육 및 품계>

